

예수 부활 대축일

기도서 278 면

제 1 독서 : 사 도 10, 34a. 37-43

제 2 독서 : 골 로 3, 1-4

복 음 : 요 한 20, 1-9

#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1983년 부활절

## 부활 메시지

교 구 장 박 정 일 주 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우리는 기쁜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즐거운 축일입니다. 원조들의 죄로 인하여 죽음과 멸망의 구렁 속에 헤매던 인류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으로 구원되었으며 그 구속사업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 주춧돌이 놓아졌기 때문에 부활절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하여 가장 기쁜 명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아직도 죄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1고린 15, 17).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대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우리 믿음의 보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쁜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고 보다 진실하고 생활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받드는 믿음이고, 죄에 떨어진 인류를 당신 생자의 수난으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운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에서부터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물주께 대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하느님을 절대자로 모시고 섬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받들어야 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르 12, 28-30).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하느님 보다도 재물과 명예, 쾌락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나 않는지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는 커녕 그 절반도 주님을 위해 바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크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보답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 당신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아직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 200 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한층 더 전교에 매진하여 하느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합시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애덕의 실천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특히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 없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행동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정의를 이룩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정의를 먼저 이룩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의의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정의는 첫째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구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그리스도 신자로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사회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경제부흥이나 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 안에 현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아직 정의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과 약육강식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슬픈 실정을 우리는 세계 여러

(3면에 계속)

<p>부</p> <p>(축)</p> <p>활</p>	<p>전주교 전주교구 사제단</p> <p>평신도 사도직 협의회</p>
------------------------------	--



### 우리의 모습은?

대자연의 섭리는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제 또다시 봄의 생기가 온 대지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매서운 찬바람과 눈보라가 우리를 얼어붙게 하던 지난 겨울에는 그저 떨기만 했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먼동이 터오듯, 지금 우리는 싱그러운 봄기운에 생명의 약동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때를 맞추거나 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한 부활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을 앞두고, 특히나 구원의 성년인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 되새겨야 한다. 분명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무엇이다. 어쩌면 그것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구원의 성년을 선포하면서 교황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께 문을 여시오”라는 의침을 들려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문을 길게 늘이고 기다려도 우리는 아무 것도 만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문을 열 때이다. 그래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을 여는 준비로 지난 사순절을 보냈다. 지난 날들을 정리하는 정도의 자세로는 부족하다. 조금 더 문을 열자.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을 뜻있게 맞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몸짓을 보여야 한다. 크리스찬인 우리 본연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찾고, 또 그렇게 살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간나는대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 묵상하고 연구하자.

### 숲 정 이 산책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진짜!

### 이 아침에

장 크리스티나

질혹같은  
어둠을 가르며  
여명을 깨는  
다시, 맨처음의 아우성.

재를 받아  
허무를 욕신으로 배우며  
떨어져 가는 사랑을 붙잡고  
새겨도, 또 새겨도  
흐려지는 나약한 인정

부르는 소리  
언제나 외면하며  
세속에 연연한 채  
살아온 어정쩡한 나날들  
돌아보면  
더욱 뚜렷한 나그네 인생길.

목마름에  
허우적거리다 지친  
영혼 위에  
트이는  
그  
머-어-날의 아스라한 빛줄기.

꺼져가는 등불에  
그  
불빛 다시 밝혀  
열정을 달구며  
달린 가슴 흔드노니

살을 에이는  
더 큰  
회한의 눈물 지으며  
봄내음 자욱하고  
별무리 스치고 간  
동트는  
이 아침  
알렐루야! 알렐루야!  
개선의 노래  
함께 부르며  
한결  
더 가까이 살고 싶음이어!

(둔울동 천주교회)

### 정정합니다

본보 3월 27일(540호) 3면 해외 성지 순례단 모집 마감일 4월 10일까지로 정정합니다.

금·은·보석·시계는

###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영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결혼대절,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 혼수(회갑) 옷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침구류 \* 상
- 각종 솜 일체 |
- 커튼지

서울 주 단  
☎ ③0453 ⑤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독일 치질약 재입하  
하 이 덴

여드름 치료제 입하

### 전주 시민약국

☎ ④ 0009 · ③ 3338  
약사 김 병 의(마벨로)



## □ 성년 전대사

교황 성하께서 내리신 성년 전대사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이 전대사는 성년이 끝나는 1984년 4월 22일 부활 대축일까지 받을 수 있다.

1. 교구 또는 본당 차원에서 성년의 지향을 따라 공동체로써 거행하는 전례 혹은 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단 언제나
  - 가) 교황 성하의 뜻을 따라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고 모든 믿는 이들이 어디서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 및 성체성사를 받고 용서, 화해, 자신의 행위를 합이 바람직함.

이상의 사항을 전제로 하여 ①성년을 위한 미사에 참여할 때 ②성년지향에 따라 말씀의 전례나 개인 고백이 있는 참회예절을 할 때 ③성대한 전례행사나 견진, 혼인, 병자, 신품성사에 참여할 때 ④성년을 위해 계획한 십자가의 길을 바칠 때 ⑤특별 피정에 참여할 때 ⑥본당별 또는 단체별로 성지를 순례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 성당을 방문함으로써 대사를 얻을 수 있다.
  - 가) 개인적으로나 가족단위 혹은 단체로 주교가 지정한 성당 중에 하나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묵상하며 잠깐 머물러 사도신경과 주의기도 그리고 교황 성하의 지향대로 기도를 바침으로써 성년대사를 얻을 수 있음.
    - ①로마에 있는 4대 성당
    - ②전주교구내-전주 중앙 주교좌 성당, 전주 전통성당, 화산 성당
    - ③각교구 주교좌 성당 및 순례 지정 성당
  - 나) 건강상의 이유로 지정된 성당을 방문할 수 없는 신자들은 자기 본당을 방문함으로써 성년대사를 얻을 수 있음.
  - 다) 병상에 있는 이들 양로원과 교도소에 있는 신자들은 기도와 고통을 바치면서 성년을 위한 행사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뜻을 가짐으로써 성년 대사를 얻을 수 있음.
  - 라) 봉쇄 수도자들은 자기네 수도원이나 수녀원 성당에서 성년대사를 얻을 수 있다.
3. 성년 대사는 하루에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대사는 언제나 연명에게 양보할 수 있다. 또한 고백의 성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적상태라면 전대사를 얻기 위해 매번 고백의 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테클라 모임 성소자 피정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전주 분원에서는 수도생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성소자 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날자 : 83년 4월 10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 : 노송동 천주교회

회비 : 1,500원      준비물 : 미사포, 묵주, 성가집(공)

마감일 : 4월 8일 전화 혹은 신청서

(1면에서 계속)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 곁에 있어서 예외가 아닐뿐 아니라 보다 완전한 정이 실현되어 평화를 누리기에는 아직 먼 실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근년에 와서 "정의 사회 구현"이란 플래카이드를 우리 사회 군데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가끔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어서 슬픈 때가 있습니다. 보다 살기 좋고 평화스러운 한국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의와 평화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그리스도의 구원 성업 1950주년을 기념하는 구원의 성년입니다. 우리는 이 겹치는 뜻깊은 경축의 해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민중의 자세를 반성하고 내적으로 쇄신되어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 모습을 도로 찾고 이 땅의 참 빛으로써 온 겨레를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로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사회에 충만히 내리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 요심이 (504) 김병오



## 神父님 잠깐만

살수록 그리스도는 위대하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부활을 앞두고 입산부가 해산할 것을 근심하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태풍의 전야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속없이 등산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제도 기쁨을 처야 하니깐요.

날자 : 4월 11일 오전 10시 센터

장소 : 운장산(1125m)

잠 : 독자동(운일암 바위암 굴짜기)

걸음 : 독자동→신성→유현→웃대아리→백스(약6km)

잠 : 가톨릭 센터, 라라-라

돈 : 큰돈 한장  
※ 셀파도 가람  
안내자 김 병 역

##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타

구역전 오거리  
전화 3032  
윤(베드로) 중선

## 모 집 공 고

당 업체는 섬유 수출 업체로써 참신하고 의욕적인 여성 근로기능 및 견습사원을 모집합니다

영 화 섬 유 공 업 사

전주시 서서학동 281번지      전화 6047

대 표 : 오 윤      길(벨라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참사회의: 8일 <금> 오전 11시
  2. 제 5 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4월 9일~16일
  3. 군중후원회 릴레이미사: 4일 <월> 저녁 7시, 가톨릭센터 강당, 주례-유영도 신부님
  4. 예비자교리 낮반: 6일 개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5. 설사 40주간: 7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6. 중·고등학생 회장단 회의: 10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가톨릭 센터, 회비-2천원
  7. 1일 성서 피정: 11일 <월>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센터, 참가비-2천원, 참가자 요한복음 읽 을것
  8. 베델성서(생활편 제2기) 강좌: 접수마감-4월 15일. 문의처-교육국
- 교구정 휴일: 4일~5일

(중앙)

전화 ②1711~3

주임 신부 문정희  
수석보좌 한기철  
보좌 신부 안인길  
사도 회장 사도

1. 복자반 예비자 모집: 4월부터 시작되는 복자반 교리에 교우분들은 예비자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제양성 저금통: 알차게 살펴봅시다
  3. 경향잡지 구독: 1권 월 1300원, 년-13,000원
  4. 토요일 특전미사: 6시~7시로(4월부부터)
  5. 고등학생 신자 교리반: 10일 9시 미사후, 강당
  6. 축! 환영합니다: 이번주 전일자  
김종원·백요한·유영주·임명순·김아남·백일명  
가족·원길정·나정선·안용·양일로·김종하
  7. 신학원급 신입생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859,963원 교무금: 4,583,600원  
인성회 헌금: 259,490원 감사헌금: 엄도마·서광일·허진명(각 2만원), 김중철(1만원)

(서학동)

전화 ②272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예수부활 대축일: 부활의 기쁨이 가정에 충만하시길 미사시간-새벽 6시, 10시(공식미사), 3시(어린이미사), 저녁 7시30분
  2. 사도회: 8일 저녁 8시
  3.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시30분
  4. 반장 릴레이: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모동상 축선 및 제막식: 8일 저녁 7시30분 레지오 단원 참석합니다
  7. 꽃대 봉헌: 윤정순(1만원), 한크리스티나(1만원) 고우요한 앞으로 최정자씨가(3만원) 봉헌
  8. 부활초 봉헌: 최 찬대자(모니카) 2만6천원
  9. 차추전례: 독서-①이정민 ②박경환  
기도-신학원·유혜미·신영창
- 지난주 봉헌금: 296,585원 교무금: 761,500원

(노송동)

신부 ②0969번  
수.사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웅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 ※ 축! 부활 영세자들 축하합니다
1. 5개공소 합동미사: 오늘 오후 3시, 왕정리 공소에서 공소 신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사제양성 후원저금통: 다음주까지 봉헌
  3. 형제회 릴레이: 오늘 공식미사 후
  4. 본당 아치에스 행사: 10일 꾸리아 회합 후 협조단원 및 예비단원까지 참석하세요
  5. 학생회 릴레이: 오늘 학생미사 후
  6. 성전 청소담당: 4일 오전 10시, 성실한 모후팀
  7. 아파트 소식: ○예비자 지성인반(남자) 교리시작: 9일 토요일 저녁 7시30분, 담당-김신부님  
○성모회 소식  
①임원회-6일 오전 10시 성당에서 있음  
②월례회-첫모임-14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379,195원 아파트: 51,280원  
교무금: 949,500원 아파트: 29,000원

(숲정리)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업

1. 축! 부활: ①부활달걀 판매-학생회에서 ②신학생 후원금 특별봉헌
  2. 사도회·꾸리아 릴레이: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새벽미사: 월·수요일-6시
  4. 부활 삼중: 부활시기 동안
  5. 부녀회·성모회·후원회 합동 모임: 10일 오전 11시
  6. 예비자교리: 부활축일에는 없음
  7. 평신도 강론: 다음주 김남근
  8. 4지구 사목위원회의: 4월 6일 저녁 7시, 중앙성당 대상-사도회 임원님, 분원장 수녀님
  9. 차추전례: 해설-정주복, 독서-황현도·김남근 기도-김정주·허옥순
- ※ 신학생 후원금: 64,910원 신축금: 익명(10만원)·순교자 유해 기도회: 129,970원 인성회헌금: 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138,855원 교무금: 527,500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영현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심으로 부활 축하합니다
  2. 금일 친교행사: 공식미사 후 마당에서
  3. 성서부녀회: (40~50대 부녀) 친교행사후, 성당에서 청년연합회: (18세이상 젊은이) " , 학생회관
  3. 미사시간 및 교리시간 변경: (금주부터) 저녁미사-7시→8시로, 교리시간-7시30분→8시30분
- ※ 사단미사 주일 오전 9시로(다음주부터)
- 지난주 봉헌금: 339,400원 교무금: 1,115,000원  
기도회 헌금: 343,350원

(전동)

전화

신부 ②6208  
사무 ②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병길  
보좌 신부 박찬우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8시30분 미사후
  3. 자모회·장우회·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4. 신학생 후원회에 가입하세요: 1주짜-1천원
  5. 미사시간 변경안내: 아침미사-5시30분, 학생미사-8시30분, 공식미사-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30분
  6. 중·고생 괴리: 학생미사 후
  7. 제일학교 부활절 행사: 오후 2시 미사, 성가대회
  8. 차추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이영철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650,280원 교무금: 581,700원

(복사)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 ☆ 축! 예수 부활
1. 꾸리아회: 다음주일(10일 오후 2시)
  2. 성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부녀회 빈첸시오회: 4일 어머니 미사후
  4. 판공성사 아직 못보신 분들은 매미사 전후에 보세요
  5. 첫 영성체: 오늘 공식미사(30명)
  6. 병자봉성체: 7일
  7.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조성호 ②양규철  
차추전례: 해설-김성원, 독서-①조영호 ②최정순
- 지난주 봉헌금: 626,46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축! 영세: 지난주 80분
  2. 오늘은 부활대축일 다같이 기뻐합니다
  3. 사도회 릴레이: 오늘날 없습니다
  4.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5. 성모회 릴레이: 8일 6. 기사회: 9일 오후 2시
  7. 전자오르간 기증(100만원): 정렐레나씨 감사합니다
  8. 제대바닥: 은모니카·이라파엘(영세자) 26만원
- ※ 쥬스병: 유그라시아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65,785원(단식 포함)  
교무금: 581,000원 치명산: 70,680원

3. 봄 판공 활고 : 봄 중 하나 선택—① 요나 예언서 요약(p. 1535) ② 신앙강연회 참석

4. 봄 판공 고백성사 일정 : 오후 2시—오후 6시

- |                          |                        |
|--------------------------|------------------------|
| 3월 14일<월> : 서신동 1.2구역    | 3월 15일<화> : 서신동 3.4구역  |
| 3월 16일<수> : 서신동 5구역, 어은골 | 3월 17일<목> : 진북1동, 태평동  |
| 3월 18일<금> : 금암동 1.2구역    | 3월 19일<토> : 직장인, 대학생   |
| 3월 21일<월> : 진북2동 1.2구역   | 3월 22일<화> : 진북2동 3.4구역 |
| 3월 23일<수> : 진북2동 5.6구역   | 3월 24일<목> : 진북2동 7.8구역 |
| 3월 25일<금> : 진북2동 9.10구역  | 3월 26일<토> : 초·중·고등학생   |
| 3월 28일<월> : 동양아파트, 기타    |                        |

5. 성주간 및 부활절 행사

- 성지주일(3월 27일) : 오전 10시 성지축성, 성지행렬, 미사
- 성목요일(3월 31일) : 오후 7시30분 주의 만찬미사, 세족례  
오후 8시30분~오후 11시 공식 성체조배
- 성금요일(4월 1일) : 오후 3시 공식 십자가의 길. 오후 7시30분 예수 수난 전례
- 성토요일(4월 2일) : 오후 3시 유아영세식. 오후 7시30분 부활 전야 미사
- 부활대축일(4월 3일) : 오전 6시30분—아침미사, 오전 10시—공식미사  
오후 3시—아침미사, 오후 7시30분—저녁미사

6. 신학생 후원금을 위하여 헌금 모금 협조 의뢰 :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과 부활절에 특별헌금이 있겠으니 교형 자매님들께서는 많은 봉헌 바랍니다.

※ 공식 성체조배 차례

- 8시30분~ 9시20분 : 중·고·대학생, 일반 신자
- 9시20분~10시10분 : L.M 단원, 교리교사, 요안회, 기타 단체
- 10시10분~11시 : 사도회 임원, 각 구역 정.부회장

※ 세족례에 초대받은 교우(12명)

- 홍 종식, 김 귀권, 이 상용, 이 강로, 김 영진, 이 병호, 김 수결, 이 규철, 이 귀례,  
강 삼, 김 남곤, 고 재권

순 정 이 성 당

전화 ③ 7366 번





# 사순절에 즈음하여

예수께서는 사막에서 40일동안 엄재를 지키셨으며, 이스라엘 민족도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40년 동안 사막에서 엄한 시련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영세할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금년 사순절 40일 동안에는 더 용감하게 유혹을 물리치며 희생과 애덕으로써 뜻있게 지내야겠습니다.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겸해서 지키고 사순절의 금요일마다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단식재는 만 21세부터 만 60세까지 지키고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단식재는 아침을 먹지 않으며, 금육재는 고기(육류)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킨 그 몫을 모아서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좋은 일에 써야합니다.

사순절 매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사순절부터 부활절 행사까지의 계획이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으니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 1. 각 구역 공동체 정.부회장 모임

일시 : 1983년 2월 9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 구 유치원

## 2. 사순절 신앙 강연회

일	시	연사	직위	제목	미사
2월 16일(재의 수요일)	오후 7시30분	이인복	숙대 교수	죽음	오후 7시
2월 17일<목>	오후 7시30분	이인복	숙대 교수	죽음	오후 7시
2월 23일<수>	오후 7시30분	이인복	숙대 교수	죽음	오후 7시
3월 2일<수>	오후 7시30분	서석구	신부(고창주임)	신앙생활	오후 7시
3월 9일<수>	오후 7시30분	박중신	신부(교육국장)	사랑생활	오후 7시
3월 16일<수>	오후 7시30분	이태구	세미나 강사	십자가	오후 7시
3월 23일<수>	오후 7시30분	김종길	주임신부	빠스카	오후 7시